

미래사회 영재 판별 방법에 관한 연구

이재호* · 류지영** · 진석언***

경인교육대학교* · 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원** · 건국대학교***

요 약

영재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영재성에 대한 정의와 영재를 정확하게 판별하는 것이다. 영재의 판별은 영재성의 정의에 근거해야 하는데, 영재성의 정의는 사회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며, 영재성은 개념적인 용어이므로 직접적으로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영재를 판별하는 것도 명확한 기준에 따른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도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최근 영재교육이 상위학교 진학에 도움이 된다고 하여 많은 학부모들이 영재교육을 특목고와 명문대 진학을 위한 발판이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 본 연구는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영재를 판별할 방안을 개발하기 위하여 영재선발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현행 영재 선발 방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한 다음, 이를 활용한 판별 전략과 선발 절차 및 방법 등을 제안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래사회에 성공할 가능성이 많은 영재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인지적인 요소 외에 정의적인 요소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영재성을 가진 모든 영재들에게 영재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영재 프로그램 배치 후에도 영재성에 대한 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밝히고 있다.

키워드: 미래사회 영재, 영재판별, 영재선발

A Study on Identification Methods for Gifted Students in the Future Society

Jaeho Lee* · Ji-Young Ryu** · Suk-Un Jin***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KAIST** · Konkuk University***

ABSTRACT

Identifying gifted students in the valid method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in the field of gifted education. The identification processes should be based on the theoretically sound definition of the gifted. However, the concept of giftedness varies according to the culture and philosophy of each society. Furthermore, we do not have any direct measure for evaluating students' giftedness. So far, there is no satisfactory single tool which is universally accepted as an absolute identification method. Recently, programs for gifted students are regarded as the channel for entering prestigious high schools as well as competitive colleges by many parents in Korea. As the result, education business for preparing young students to be accepted to gifted programs are growing rapidly.

This study was performed in order to (1)analyze the problems in the current identification methods, (2)establish the strategies for identifying gifted students whom the future society needs, and (3)suggest the procedures and tools which can be adapted for the proposed identification methods.

Keywords: gifted students in the future society, identification of the gifted

* 교신저자 : 진석언, 건국대학교

논문투고: 2011-03-16

논문심사: 2011-05-04

심사완료: 2011-06-20

I. 서론

교육의 목적은 학생 개개인이 자신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으로 계발하여 자아실현을 돕고, 궁극적으로 인류를 위하여 봉사하고 사회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뛰어난 능력을 가진 영재를 발굴하여 그에 맞는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는 영재교육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입시제도 위주의 획일적인 교육환경 속에서 학생의 개성과 잠재능력은 계발되기 어렵고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개별화된 교육을 기대할 수 없었다.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영재들은 그들이 가진 잠재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채 그 능력이 사장되거나, 오히려 부적응하여 문제가로 전락하는 경우도 발견되고 있다. 그리하여 개인적 측면에서는 학생 개개인의 우수한 능력을 실현시키지 못하고, 국가적 측면에서는 교육의 질적 수준이 낮아져 국가경쟁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11].

영재들의 지적 능력과 재능을 계발시켜 줌으로써 그들이 과학, 예술, 경제, 문화 등의 모든 측면을 향상시켜 주게 됨은 어떤 것보다도 가치롭고 공헌도가 크다. 특히 21세기의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고도의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지닌 인적자원의 개발로써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이러한 인적자원의 개발은 영재의 발굴과 교육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하여 세계 각국에서는 영재의 발굴과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 1월에 영재교육진흥법이 제정·공포되고, 2002년 3월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교육법진, 2002)이 공포되면서 정부차원에서 영재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2010년 12월 현재, 초등생 4만 6724명(전체 학생의 1.42%), 중학생 3만 5091명(전체 학생의 1.78%), 고교생 1만 383명(전체 학생의 0.69%)의 영재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고 있다[18][12].

효과적인 영재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영재성의 정의를 확립하는 것과 그 영재를 정확하게 판별해 내는 것이다. 영재성의 정의는 사회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며, 무엇보다 힘든 부분은 현재의 영재학생들이 성장하여 자신들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사회는 지금의 사회가 아니라, 지금과는 사뭇 다른 미래사회라는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20여년전과 지금의 사회, 사람들의 가치관과 태도가 얼마나 변하였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 이 학생들이 주역이 되어서 살아갈 20년 후의 사회는 우리의 상상력을 합부로 펼칠 수조차 없을 정도로 다르게 변화해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사회를 정확히 파악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학자들은 적어도 다가올 미래사회가 어떠한 성격을 띄고 있을 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과학과 사회의 발전을 바탕으로 다가올 미래는 단순히 과학의 시대에서 복잡하게 과학의 시대로 바뀌고, 지본사회와 자본사회를 넘어 지식을 바탕으로 한 창조사회로 나아가게 된다고 한다[1]. 이러한 미래 창조사회에서 리더로 활약할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일지를 미리 예측하여 판별한다면, 우리는 미래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영재를 제대로 찾아내서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미래 창조사회에 필요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가늠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 창조사회에 필요한 리더십은 ‘팀 리더십’, ‘공유하는 리더십’, ‘파트너십’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는 남과 함께 조화롭게 일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할 줄 아는 리더십으로, ‘열림’, ‘소통’, ‘여성성’, ‘과학기술’, ‘창조사회’라는 말이 강조될 것이라고 한다[1][2].

하지만 이러한 영재성의 특성을 지닌 영재를 직접 판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그에 따른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도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은 잘못된 판별 방법으로 영재성이 없는 학생이 영재교육을 받는다는지, 영재성이 있으나 영재로 판별되지 못해 영재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전혀 방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영재성이 없는 학생을 영재로 잘못 판별하여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했을 경우, 그 학생은 프로그램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성이나 인성 등의 정서적인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반대로 영재성이 있는 학생이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받지 못할 경우,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여 영재성이 쇠퇴하거나 사라지기도 하고,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지 못함으로 인해 사회 정서적인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14]. 올바른 영재 판별은 영재 학생 개인의 자아실현 및 각 개인

의 능력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국가·사회적으로는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11].

우리나라의 영재 판별은 여러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고 있다. 2010년 이전에는 영재의 선발을 위해 학교장이나 교사의 추천과 학문적성검사 및 영재성검사를 실시하였으나, 2010년부터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필기시험이 아닌 교사의 영재학생에 대한 관찰과 추천을 통하여 영재를 선발하도록 권유하여 일선 영재교육기관의 대폭적인 영재선발 개선을 실시하였다[8].

기존의 필기시험에 의한 영재선발 방식은 사교육에 길들여진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숨어 있는 진정한 영재성을 발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 시험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영재를 추천하도록 하였는데, 이에 시험이 아닌 장기간의 관찰에 의한 영재 선발이 실시되게 되었다[8].

새로운 영재판별방식은 모든 학생에게 공정하고 사교육의 개입여지를 차단한 듯 보이나, 몇 가지 잠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우선, 영재성과 잠재성이 있는 모든 학생을 영재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실질적인 우리나라의 영재교육 여건에서는 모든 영재학생을 교육 대상으로 포함시키지 못하고 일정 비율의 인원만을 선발하여 교육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진 학생까지를 영재로 판별하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교사의 관찰에 기초하여 영재를 선발하게 됨으로서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영재와 영재성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이해의 정도, 태도에 따라 판별되는 학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학생들을 객관적으로 판별해 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특히 21세기는 그동안 새로운 시대의 특성이라고 일컬어져 온 지식기반사회를 지나 모든 분야 간에 서로 융합이 일어나는 지식융합사회가 될 것이며,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21세기에 적합한 인재상 또한 이전과 많은 차이를 보이며 변화하고 있는데[3], 과연 20세기의 교육을 받은 교사들이 미래에 재능을 발휘할 영재들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판별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영재들을 어떻게 판별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

였다.

본 논문의 구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일반적인 영재 판별의 정의와 절차 등을 살펴보고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영재를 정의하였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방법의 문제점을 4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 제4장에서 분석결과를 요약한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제5장에서는 미래사회 영재 판별을 위한 전략과 선발 절차 및 방법을 제안하였다.

2. 관련 연구

2.1 영재 판별의 정의

영재 판별은 영재교육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Borland(2008)는 영재교육에서 영재를 제대로 선발하지 못할 경우 선발된 학생에게도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없어서 문제가 되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에서도 효과적이지 못하고 결국은 낭비만 하게 된다고 하였다[13]. 영재판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발하려고 하는 영재들이 지니고 있는 영재성을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것이다. Pfeiffer(2008)는 영재성을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하나 이상의 영역이나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이라고 하였다[16]. Morelock(1996)은 영재와 영재성에 대한 연구들을 분석한 다음, 영재아들은 일반아들과는 다르게 학습하고 신경학적으로 다른 기능을 보이기 때문에, 일반아들과 다른 수준과 형태의 인지적인 자극이 필요한 학생들이며, 잠재적으로 사회·정서적인 위험을 안고 있다고 하였다[15]. 이러한 영재아들을 찾아내서 학습을 하기 위해서 Tannenbaum(2003)은 영재 판별 절차는 뛰어난 잠재력을 가진 영재 학생들을 배제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넓게 진단하는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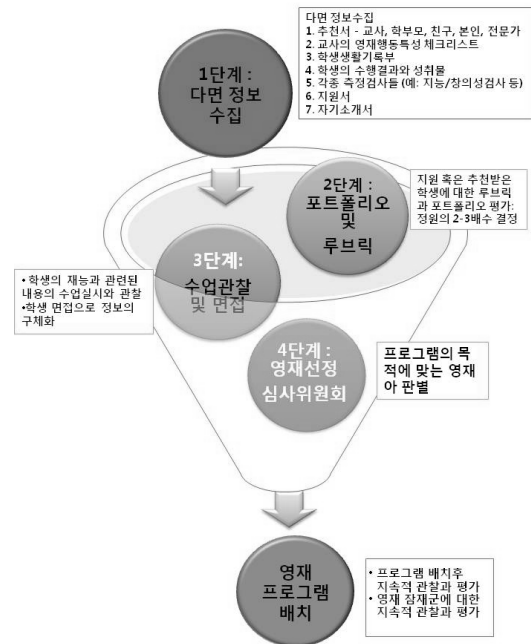
어떤 학생이 일반적인 학교교육에서는 자신의 교육적 욕구를 충족할 수 없을 정도로 능력이 뛰어나서 그 학생이 가진 잠재능력이나 재능을 최대한 계발시켜 주기 위해서는 다른 형태의 교육을 필요로 한다면 교육자들은 그들의 흥미와 능력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적어도 시·도교육청 소속

영재학급과 영재교육원과 같은 공립 교육기관에서는 영재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최대한 선발하여 적절한 교육을 제공해주어야만 한다.

2.2 영재 판별의 일반적 절차

영재를 판별하는 과정은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목표와 교육과정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므로,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지만, 영재를 판별하기 위한 기관이나 프로그램에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게 된다[14].

첫째, 판별하고자 하는 영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결정한다. 즉, 영재의 정의를 명확히 한다. 먼저 어떠한 영재를 찾아낼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기관들의 방법을 따라 영재를 판별하게 되면, 영재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 제대로 봉사할 수 있다고 보기가 힘들다. 둘째, 어떠한 절차를 따르고, 어떤 정보들을 수집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다양한 측면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각 평가 목록들은 그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심사(Screening)와 배치(Placement)로 나누어서 영재를 판별해 낸다. 셋째, 심사 단계에서는 모집단 중에서 영재라고 생각되는 학생들의 범위를 넓혀 전체 학생들의 10-20% 까지 넓게 일차 선발한다. 영재는 대체로 인구의 3-5%라고 간주하는데, 이렇게 많이 선발하는 이유는 가능한 1차 대상을 폭넓게 하여, 단편적인 학생들의 정보에 의해 학생들이 영재/비영재로 나누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실제로 영재인 학생을 단지 한 번의 검사나 관찰로 영재가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심사 후에 정확한 판별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단위에서 가지고 있는 기록들과 추천, 집단 테스트 등을 가지고, 이미 정해놓은 심사 기준(가능한 많은 학생들이 선택되도록)에 맞추어 학생 선발집단을 구성하는 것이 좋다. 그 이후에 여러 다른 정보 및 면접 등을 통하여 추가 정보를 파악한 다음, 선발전형위원회에서 영재를 판별하게 하는 것이 체계적으로 영재를 선발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은 관찰·추천에 의한 영재 판별 다단계 절차의 가능한 한 예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영재 판별교사에 의한 영재 판별의 절차[5]

2.3 미래사회 영재의 정의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영재에게 부여하던 사회문화적 가치도 달라진다. 그 결과 미래사회 영재에게 기대하는 바와 이들을 육성하고 지지하는 교육 방안도 변화를 줄 수밖에 없다. 박경빈·전미란·이미순(2010)은 연구를 통하여, 미래사회 영재를 ‘자율적으로 지식을 생산하며 공동체의 발전적인 화합과 비전을 제시하는 인재’로 정의하였다. 이상의 정의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동시에 더불어 살아가는 인재를 양성’ 한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의에 비견되는 것으로서, 미래사회 발전을 이끌어 갈 영재의 주도적인 리더 역할(사회적+도덕적)을 한층 강조하는 것이다[5][6].

3. 우리나라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방법의 문제점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급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재교육 프로그램은 여러 주체에 의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다양성에 비하여 참여할 학생들을 결정하는 판별활동에 있어서는

상당 정도의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유사성으로 인해 학교급을 불문하고 유사한 문제점 또한 공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영재학생 판별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9][10][11].

첫째, 교사의 장기간의 관찰과 추천에 의한 영재판별방식에 대한 교사의 이해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관찰·추천에 의한 영재판별이 실시되고 있어, 교사간의 영재성과 현 영재판별방식에 대한 이해 정도에 따라 판별되는 영재학생이 다를 수 있다. 둘째, 창의성이나 지도력, 인성 등의 학생의 정의적 요소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인 기준의 부재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측정의 실효성이 의심된다. 셋째, 영재성을 가진 학생을 찾아 교육을 제공하기보다는 사전에 정해진 인원수에 일치될 때까지 잉여의 학생들을 배제하는 것이 판별의 과정으로 운영되어 왔다. 넷째, 상이한 수준의 영재교육 프로그램들이 각각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유사한 판별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다섯째, 해당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학생들이 결정된 이후에는 학생들의 영재성에 대한 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3.1 관찰·추천에 의한 영재판별의 예상 문제점

이전까지 영재판별에 실시되어 왔던 학업성취도검사나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 등의 검사들은 학생들의 영재성을 객관적으로 수치화하기 쉽고, 학생들을 서열화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검사의 가장 큰 장점은 특별한 의사소통의 과정을 통하지 않고도 영재학생이 가진 특정 분야의 지식획득 수준과 문제해결능력의 수준을 짧은 시간 내에 객관화된 수치로 드러낼 수 있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영재학생의 판별을 위해 시험문제 풀이 방식에 의존하는 것으로 인하여 심각한 문제점들도 나타났다.

시험문제 풀이를 통해서 영재학생들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진정한 창의성과 인성적 요소들을 확인하기 힘들다는 점과, 이러한 시험에 초점을 맞추어 준비된 전문적인 사교육 프로그램들이 나타나 수동적인 지식과 요령을 익힌 학생들이 영재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대두되었다. 이의 보완을

위해 새로이 등장한 관찰·추천에 의한 영재판별은 단편적인 지식의 함유량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 장면에서 학생의 인지적인 역량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영재를 판별하는 데 적합해 보인다. 하지만 판별척도의 주관성, 판별의 주체인 교사의 역량과 경험, 영재교육에 대한 이해 정도에 따라 그 결과가 달리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등의 문제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관찰·추천에 의한 영재판별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영재판별을 실시하게 될 교사들의 전문성 개발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3.2 창의성 및 인성 평가 경시

대부분의 영재교육 기관들은 단계별 판별과정을 설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한 과정이 면접을 통하여 창의성과 지도력, 인성 등을 평가하는 단계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판별 활동의 실상을 확인해 보면, 이미 그 이전 단계에서 사실상 영재학생 판별이 완료되고, 형식적으로 면접의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최종적으로 선발하기로 되어 있는 정원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그 이전단계에서 이미 선발하고 심층면접에서는 특별히 문제가 있는지 여부만을 확인하거나, 최종적으로 선발하기로 되어 있는 정원보다 10% 내외를 그 이전단계에서 선발한 후 그 잉여분 만큼의 학생들만을 최종 선발 인원에서 배제하는 식이다. 따라서 사실상 영재학생들의 창의성과 인성 등에 대한 평가는 전체적인 영재학생의 판별에 있어서 원천적으로 반영되기 힘든 실정이라고 하겠다.

3.3 정해진 규모에 따른 선발

영재 판별은 문자적으로 해석될 때, 특정 학생이 영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영재교육에서의 영재 판별은 특정 학생이 영재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 학생을 영재교육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영재교육 프로그램들은 해당 프로그램의 행·재정적 여건에 의하여 사전에 교육대상 학생들의 규모를 정해두고, 해당 프로그램에 추천되거나

스스로 참여하고자 신청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서열화한 후, 사전에 정해진 수만큼의 학생들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영재성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 프로그램으로부터 배제하는 식으로 판별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배제의 원리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판별 활동은 다음과 같은 단점을 갖고 있다. 첫째, 영재판별의 핵심이 영재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의 발견에 있지 않고, 영재성과 관련된다고 여겨지는 능력에 있어서 서열화하고 특정 순위 이내의 학생들을 영재로, 그 이외의 학생을 비영재로 구별하는 것이 됨으로써 영재교육 자체를 비교육적인 활동으로 만들게 된다. 둘째, 영재판별의 과정이 특정 학생의 영재성 여부에 관심을 두지 않음으로써, 현장의 교사가 어떤 학생이 영재교육을 필요로 하는가 보다는 어떤 학생이 영재판별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통과해낼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영재교육 대상자를 추천하게 된다. 그 결과, 잠재력이 뛰어난 학생의 관찰과 추천을 통해 영재판별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현장의 교사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해주는 뛰어난 영재성을 가진 학생들이 발굴되지 못하게 된다. 셋째, 뛰어난 잠재력을 가진 학생들이 그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서열화에 따라 영재로 판별되지 못하고 비영재로 낙인이 찍히는 결과를 낳음으로써, 자신의 잠재력을 계발시킬 수 있는 기회와 동기를 잃게 되어 그 잠재력이 영원히 파묻히게 된다.

3.4 상이한 영재교육 프로그램 특성 무시

현재의 영재 판별 방법은 영재학급이나 교육청부설 영재교육원은 물론,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영재학교 등이 영재 선발을 위한 기본적인 틀을 상당 정도 공유하고 있다. 오로지 행·재정적 여건에 따라 일부 단계를 간략화하는 등의 방법에 의해 약간의 차이가 나타날 뿐이다.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가장 기초적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단위학교 내 영재학급의 경우에는 사실상 최대한 개방된 형태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가령 Renzulli의 회전문판별모형과 같이 누구든 원하는 경우에는 참여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교사의 추천이 있으면 해당 프로그램에의 참여 기회

를 제공하는 것을 생각해 볼만 하다. 전국 단위로 신입생을 선발하게 되는 영재학교의 경우에는 물론 이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판별 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영재교육기관들은 자체의 목적과 대상에 상관없이 대체적으로 비슷한 양상의 영재판별방식을 택하고 있다.

3.5 선발 이후 체계적인 평가 미비

대부분의 영재교육 프로그램들이 학생을 선발할 당시에는 상당한 재정과 노력을 들여서 학생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만,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할 학생이 결정된 이후에는 이들에 대한 평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영재교육 프로그램들에 학생들이 일단 참여하게 되면 1년간, 또는 과학고등학교나 영재학교의 경우 2-3년간의 해당 프로그램에의 참여를 보장받고, 그 이후에는 해당 프로그램이 관여하는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영재학생들에 대해 의미 있는 평가를 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기 힘들었다. 때문에 영재학생들의 선발과정이 그다지 신뢰롭지도, 타당하지도 않다는 것을 공감하면서도 일단 선발된 학생들의 영재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 학생들의 영재성을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은 바로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상 영재 판별의 완성은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학생들을 선발하는 단계에 있다기보다는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단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4. 영재 선발 방법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

본 논문에서 살펴본 우리나라 영재교육기관에서의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방법의 현황과 이와 관련한 문제점들의 검토를 통해 향후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방법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7][8][9].

첫째, 관찰·추천에 의한 영재판별 방식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보다 객관적인 관찰도구의 개발과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 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관찰·추천에 의한 영재판별의 객관성과 타당성은 위협당할 수 있다.

둘째, 창의성, 지도력, 인성 등과 같은 정의적 영역의 평가가 보다 유의미하게 이루어지는 방안이 요구된다.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 ‘리더십 검사’ 등과 같은 지필검사를 통해 어느 정도의 정의적 요소를 측정하고자 노력하여 왔으나,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창의성이나 지도력, 인성 등과 같은 정의적 요소의 평가가 효과적인지는 의문이다. 시험과 같은 지문형식으로 이러한 요소를 평가하기란 사실상 어렵다고 보이며, 보다 효과적인 새로운 방식의 평가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영재교육 대상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이 영재교육 대상자의 수가 지나치게 제한적인 한 영재교육 대상자의 선발과 관련된 문제점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기초 수준에 해당하는 영재학급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진입을 위해 지나친 경쟁을 할 필요가 없도록 하고, 실질적인 영재성 수준의 평가는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영재교육기관의 특성에 따른 선발 방식의 개발이 필요하다. 각 영재교육기관 유형에 따라 적절한 선발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영재교육기관 유형에 따른 위계화를 통해 각각의 영재교육기관이 요구하는 영재성 수준에 따라 다른 평가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각 영재교육기관에서 운영되는 교육프로그램은 교육과 평가의 기능을 함께 강조할 필요가 있다. 개별 학생의 영재성 평가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각 영재교육 프로그램에서의 교육활동이 상위 영재교육기관 참여를 위한 평가 프로그램으로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가령,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기초가 되는 단위학교 영재학급은 원하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허락하고, 해당 프로그램에서 교육활동에서의 수행 수준을 평가함으로써 지역교육청부설 영재교육원에 참여할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영재교육 대상자의 선발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 현재와 같이 다양한 유

형의 영재교육 프로그램들이 각자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제각각 운영되는 것은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영재교육 대상자의 선발을 위해 이러한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형식적으로만 기능하고 있는 영재교육진흥위원회와 같은 기관들이 여러 영재교육 기관들을 조정하는 기관으로의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할 것이다.

5. 미래사회 영재 판별 방안

5.1 미래사회 영재 판별을 위한 전략

본 논문에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은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1)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진입 장벽이 낮추어져야 하고, (2) 영재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한 영재성 수준을 고려한 위계성을 갖추어야 하며, (3)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영재교육 대상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적절한 수준의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체계화와 교육 프로그램 속에서의 영재성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본 논문의 연구범위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방안에는 영재학급 등의 기초 수준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진입을 위한 교육 대상자 선정 방안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영재성이 사회문화적 개념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의 변화에 따라 영재교육 대상자들에게 기대해야 할 자질을 확인하고, 이를 영재교육 대상자 선정 방안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초단계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의 구체적인 방안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은 우리나라 교육 문화의 특성과 현재의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따르고자 하였다.

첫째, 필기 위주의 시험 및 검사를 통한 서열화를 지양한다. 둘째, 미래사회 영재의 필수적 자질인 창의성과 인성 등의 영역에 대한 평가를 형식적, 명목적인 요소가 아닌 실효성 있는 주요요소로 평가에 반영

한다. 셋째, 영재성을 갖춘 것으로 추측되고, 영재교육에의 요구를 가진 것으로 판단되는 모든 학생들에게 가급적 영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넷째, 기초단계 영재교육의 대상자 선발에서는 고도로 높은 수준의 영재성의 발견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영재교육 프로그램에의 참여를 통해 해당 학생의 진정한 영재성의 수준이 드러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에 초점을 둔다.

5.2 미래사회 영재 선발 절차 및 방법

영재교육에 처음 진입하고자 하는 학생들, 즉 단위 학교 영재학급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아직 영재교육 프로그램에서의 교육을 통해 자신의 영재성을 분명히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영재교육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별도의 평가 활동이 요구되며, 이러한 맥락에 맞는 평가방식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초기 단계의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에서 일단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평가를 하게 되며, 이때의 평가는 해당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시에 평가계획을 함께 고안하여야만 효과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본격적인 영재교육 프로그램 속에서의 평가방안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초기단계, 즉 단위학교 영재학급에 참여할 영재교육 대상자의 선발을 위한 절차 및 방법은 <표 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재학급과 같은 초기단계 영재교육기관의 교육 대상자 선발을 위한 절차는 (1)추천·지원, (2)평가, (3)선정, (4)승인·조정 등의 4단계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일단 최종적으로 영재학급에 참여하게 된 영재학생은 해당 영재학급에 (5)배치되고, 이후 그곳에서의 (6)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의 영재성 수준을 평가받게 된다.

<표 1>에 제시된 단계별 정보수집 도구들은 그 자체로서는 절대적인 평가기준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집된 정보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별도의 지침이 필요하다. 개별 학생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이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평정 기준을 제시하면 <부록>과 같다. 아래에 제시된 평정 지침은 학생의 행동특성체크리스트, 수업관

찰 및 수행평가, 추천서, 학생과의 면담결과 등에 대한 평가 준거를 설명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각각의 자료에 대한 평정과 함께 학생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다른 학생들과 다른 매우 특이한 능력이나 특성을 보이는 학생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 종합적인 평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표 1> 기초단계(영재학급)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단계	관련 정보/도구	평가기관	평가담당자	비고
추천/지원	① 행동특성체크리스트 (학부모용) ② 행동특성체크리스트 (학생용) ③ 행동특성체크리스트 (교사용) ④ 자기추천서 (자기소개서) ⑤ 동료추천서 ⑥ 교사추천서 ⑦ 생활기록부	단위 학교	담임교사 또는 교과담당 교사	도구별 평정표 (루브릭) 활용
평가	⑧ 포트폴리오 ⑨ 수업관찰 ⑩ 수행평가 ⑪ 학생면담	단위 학교 또는 지역교육청	영재교육담당교사 또는 관별교사	도구별 평정표 (루브릭) 활용
선정	⑫ 판별결과 종합의견서	단위 학교 또는 지역교육청	영재교육담당교사, 학교장	도구별 평정표 (루브릭) 활용
승인/조정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 책임자	
배치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 책임자	
교육/평가	① 수업관찰 ② 수행평가 ③ 포트폴리오 ④ 교사추천서	단위 학교 또는 지역교육청	영재교육담당교사 또는 관별교사	도구별 평정표 (루브릭) 활용

6. 결론

본 논문에서는 미래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영재를 관별하기 위한 방안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영재관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부터 출발하여 영재관별 방식, 현재 영재관별의 문제점 등을 거쳐 미래사회에 필요한 영재들을 선발하는 방식에 대해 논의하였다. 앞으로의 사회는 단순한 지식보다는 여러 영역의 지식을 융합하고 새로운 내용으로 창조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지닌 인재를 필요로 하는 사회로, 현재

의 영재시스템에서 선발되고 있는 영재들뿐만 아니라, 정의적인 영역의 영재 요소들을 보다 강조하여 선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와 같이 각 지역에 일정한 인원수를 정해 놓고, 그 수에 맞추어 영재들을 선발한다면 미래사회에 활약할 영재들을 제대로 선발하기는 힘들다고 보여 진다. 이러한 선발방식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영재프로그램의 목적과 대상에 따라 영재선발의 방법이나 그 내용이 보다 다양해지고, 각 영재교육기관간의 연계와 위계가 보다 확실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은, 영재를 선발하는 주체인 영재담당교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다. 영재와 영재성에 대한 이해의 유무에 따라 교사들의 영재 선발에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0여년 전의 시대에서는 오늘날과 같이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를 접치기 힘들었듯이, 앞으로 20년 후가 어떻게 변화해 있을지 우리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20년이 지난 후의 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영재들이 학창시절에 어떠한 특성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들을 통해 추측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보다 많은 잠재적인 영재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단편적인 순간의 평가를 통한 영재선발이 아닌 보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학습장면에서의 영재평가와 추천을 통하여 인지적인 영역과 정의적인 영역의 역량을 모두 갖춘 미래 사회에 성공할 영재를 판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본 논문에서 제시한 영재선발 방법들이 앞으로 실제 현장에 적용되어 기존의 영재선발과의 차이점과 효과 등에 대한 후속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면 한다. 영재선발 이외에도 각 영재기관들 간의 상호연계와 상호교류에 대한 연구 또한 실시되어, 미래 영재들의 잠재력이 발휘될 수 있는 기회들이 더욱 많아졌으면 한다.

참 고 문 헌

[1] 김광웅(2008). 국가의 미래: 미래 창조사회, 지식 지도가 바뀐다.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2] 김광웅(2009). 우리는 미래에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서울: 생각의 나무.

[3] 김영섭(2009). 대학교육, 이대로 좋은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주최 대학 학부교육 선진화방안 정책토론회 발표 자료.
 [4] 류지영, 정현철(2010). 영재학급 대상자 선발을 위한 관찰 추천 영재판별모형 개발연구. 영재교육연구, 20-1, 259-289.
 [5] 박경빈, 전미란, 이미순, 이재호, 류지영, 진석언(2010). 미래사회 영재에 대한 전문가들의 기대와 교육 방안. 한국영재학회 춘계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61-363.
 [6] 박경빈, 이미순, 전미란(2010). 미래사회 영재를 위한 창의·인성 교육방안 연구. 한국과학창의재단.
 [7] 박경빈, 이미순, 전미란(2010). 미래사회 영재의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예비 연구 - 현장 영재교사의 인식 중심으로. 영재교육연구, 20-3, 681-701.
 [8] 이광형, 정현철, 류지영, 김지선(2010). 영재성 판별교사 전문연수 양성과정 개발 보고서, 한국과학창의재단.
 [9] 이재호(2010). 잠재적 영재선발의 방법(관찰추천제를 중심으로). 제1회 영재교육 열린포럼 자료집, 23-28.
 [10] 이재호, 진석언, 류지영, 박경빈, 전미란, 이미순(2010). 우리나라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방식에 대한 현황 분석 및 시사점 탐색. 한국영재학회 춘계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47-360.
 [11] 이재호, 진석언, 류지영(2010). 창의·인성을 갖춘 미래사회 영재 판별 방법 연구. 한국과학창의재단.
 [12] 영재교육진흥법(2000), 법률 제 6215호, 서울:교육인적자원부.
 [13] Borland, J. H. (2008). Identification, In J. A. Plucker & C. M. Callahan, Critical Issues and practices in gifted education: what the research says(pp.261-280). TX: Prufrock Press.
 [14] Clark, B. (2008). Growing up gifted: Developing the potential of children at home and at school. 7th ed.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Prentice Hall.
 [15] Morelock, M. J. (1996). on the nature of giftedness

and talent: Imposing order on chaos. Roeper Review, 19-1. 4-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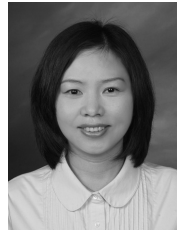
- [16] Pfeiffer, S. I. (2008). Handbook of giftedness in children. New York: NY, Springer.
- [17] Tannenbaum, A. J. (2003). Nature and nurture of giftedness. In N. Colangelo and G. A. Davis, Handbook of gifted education, 3rd ed., (pp.45 - 59). Boston: MA, Allen & Bacon.
- [18] 교육과학기술부. www.mest.go.kr

저 자 소 개



이 재 호

1996 홍익대학교 전자계산학과
(이학박사)
1996~현재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1989~1996 ETRI 선임연구원
관심분야: 컴퓨터교육, 영재교육
e-mail: jhlee@ginue.ac.kr



류 지 영

2004 Columbia University
교육과정학과(교육학박사)
2009~현재 KAIST 과학영재교육
연구원선임연구원
2008~2009 Tufts University
객원연구원
관심분야: 영재교육
e-mail: jryu01@kaist.ac.kr



진 석 언

2001 Purdue University
교육심리학과(철학박사)
2002~현재 건국대학교 교수
관심분야: 영재교육
e-mail: jins@konkuk.ac.kr

<부록> 영재성 평가를 위한 다양한 도구들의 평정 기준

단계	도구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부족
추천 / 지원	행동 특성 체크 리스트	*인지적 영역, 창의적 영역, 정서적 영역 모두에서 영재적 특성이 뚜렷하게 드러남	*인지적 영역, 창의적 영역, 정서적 영역 중 두 가지 영역에서 영재적 특성이 드러남	*인지적 영역, 창의적 영역, 정서적 영역 중 한 가지 영역에서 영재적 특성이 드러남	*영재적 특성이 잘 드러나지 않음
	추천서	*영재성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로 영재프로그램에 어울리는 영재적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음 *인지적인 능력, 문제해결력, 과제집착력, 호기심, 창의성 등이 매우 뛰어남	*영재프로그램에 어울리는 영재적 특징이 어느 정도 드러남 *인지적인 능력, 문제해결력, 과제집착력, 호기심, 창의성 등에서의 우수성이 나타남	*영재프로그램에서 원하는 영재의 특징이 조금 드러남 *인지적인 능력, 문제해결력, 과제집착력, 호기심, 창의성 등이 약간 나타남	*영재프로그램에 어울리는 영재적 특징이 거의 드러나지 않음 *인지적인 능력, 문제해결력, 과제집착력, 호기심, 창의성 등이 거의 나타나지 않음
	자기 소개서 (추천서)	*해당 학문분야에 대해 강한 열정과 높은 동기를 볼 수 있음 *영재들의 인지적, 정서적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매우 뛰어난 성취를 보여줌 *영재프로그램에서 정한 영재의 정의에 매우 가까운 능력을 보여 줌	*해당 학문분야에 대해 동기화되어 있으며, 어느 정도의 열정을 보임 *영재의 인지적, 정서적 특성을 어느 정도 보여 주며, 보통의 아이들보다 우수한 능력을 보여줌 *영재프로그램에서 정한 영재의 정의에 어느 정도 부합되는 능력을 보여 줌	*영재적 특성을 약간 지니고 있으나, 동기화되어 있지 않으며, 보통 수준의 과제집착력을 보임 *일반학생집단으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는 능력 수준을 보임 *영재프로그램에서 정한 영재의 정의에 부합되는 면이 있으나 그다지 많지는 않음	*영재적 특성을 거의 찾지 힘들고, 동기수준이나 과제집착력이 부족해 보임
평가	포트폴리오	*해당 학문분야에 대한 또래에서 찾아보기 힘든 폭넓은 지식과 이해의 수준을 드러냄 *창의적인 사고력이 다양한 산출물을 통해 뚜렷이 드러남 *관련 학문분야에 대한 열정과 관심 수준이 명확히 드러남	*해당 학문분야에 대해 상당 정도의 지식과 이해의 수준이 을 드러냄 *창의적인 사고력이 일부 산출물을 통해 상당 정도 드러남 *관련 학문분야에 대한 어느 정도의 관심이 드러나 있음	*해당 학문분야에 대한 보통 이상의 지식과 이해의 수준을 드러냄 *창의적인 사고력이 일부 산출물을 통해 다소 드러남 *관련 학문분야에 대한 어느 정도의 관심이 관찰됨	*해당 학문분야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수준이 보통 또는 그 이하임 *창의적인 사고력이 산출물을 통해 잘 드러나지 않음 *관련 학문분야에 대한 관심 수준이 높지 않음
	수업관찰 / 수행평가	*다른 학생들보다 월등히 높은 사고 능력과 지식수준을 보임 *학습활동을 통해 매우 높은 수준의 학습동기와 의사소통 능력을 보여줌 *학습활동을 통해 매우 높은 수준의 과제집착력을 보여줌	*다른 학생들보다 높은 사고 능력과 지식수준을 보임 *학습활동을 통해 상당 수준의 학습동기와 의사소통 능력을 보여줌 *학습활동을 통해 상당 수준의 과제집착력을 보여줌	*보통 학생들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사고 능력과 지식수준을 보임 *학습활동을 통해 평균 수준의 학습동기와 의사소통 능력을 보여줌 *학습활동을 통해 평균 수준의 과제집착력을 보여줌	*보통 학생들보다 오히려 낮은 사고 능력과 지식수준을 보임 *학습활동을 통해 평균 수준 이하의 학습동기와 의사소통 능력을 보여줌 *학습활동을 통해 낮은 수준의 과제집착력을 보여줌
	학생면담	*응답 내용이 일반학생과 비교하여 매우 훌륭하며, 최상위의 지원자들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음 *지식, 태도, 이해력, 적용력 면에서 일관성 있게 뛰어남 *응답 내용을 통해 영재성의 특성을 매우 많이 가지고 있음을 보여줌	*응답 내용이 일반학생보다 명확히 우수함 *지식, 태도, 이해력, 적용력 면에서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우수함 *응답 내용을 통해 영재성의 특성을 상당 정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줌	*응답 내용이 일반학생보다 어느 정도 우수함 *지식, 태도, 이해력, 적용력 등의 측면들 중 일부에서 다소 우수함 *응답 내용을 통해 영재성의 특성을 일부 가지고 있음이 드러남	*응답 내용이 일반학생보다 특별히 우수하다고 할 수 없음 *지식, 태도, 이해력, 적용력 등의 측면에서 일반학생과 유사함 *응답 내용을 통해 영재성의 특성을 찾아보기 힘들